

| 이달에 만난 사람 |

●●● 이 광 초 경인축산 대표-한국국제축산박람회 우수양계인상 수상자

간강한 병아리 생산에 주력



▲ 종계·부화산업 발전에 노력하는 이광초 경인축산 대표

실력 있는 필드전문가

이광초 사장은 지난 1977년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한일농원과 한국축산약품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유일농원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인 종계, 부화업에 발을 들여 놓았다. 1970년대 말 ND가 전국에 걸쳐 창궐할 때는 농장안에서 종계를 해부하면서 스스로 질병의 원인을 찾는데 전전긍긍하기도 하였

고는 지난 30여년 동안 양계(종계·부화)업을 영위하면서 양계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로로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우수양계인으로 선발,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이광초 경인농장 대표를 수상에 앞서 인터뷰를 통해 농장경영 등 근황을 들어보았다.

◀ 이광초

- 1977 건국대학교 축산과 졸
- 1994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석사)
- 1977 한일농원, 한국축산약품 근무
- 1979 유일농원(부화장) 근무
- 1988 경인축산 설립
- 1996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1996 대한양계협회 이사(14대)
- 19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 위원(현)
- 2005 대한양계협회 감사(현)
- 농림부장관상(우수양계인) 수상

으며, 종계사육, 병아리 및 약품 영업 등을 통해 전반적인 경험을 쌓아왔다. 1988년 경인축산을 설립한 이광초 사장은 실무와 이론을 골고루 겸비한 실력있는 필드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사업경영은 물론 양계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96년부터는 축협중앙회(2005년부터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축산관측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종계산

업의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다.

현재 충남 논산 연무대에 1년 평균 3~4만수를 입추할 수 있는 종계장이 있으며, 김포시 대곶면에는 주당 20만 수의 병아리 생산능력을 갖춘 부화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천에는 '그 램치킨' 상표명을 내걸고 닭고기 유통을 통해 소비자들과 접근하면서 닭고기 소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광초 사장은 생산, 부화, 유통을 책임제로 나누어 수평계열화 형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부화장에 자주 들러 건강한 병아리 생산, 공급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993년 외부자금을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 조달로 신축한 부화장이라 최신식 자동화 보다는 못하지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난각을 처리하는 발효기까지 갖추는 등 어느 부화장 못지않은 생산성을 기하고 있다.

청정지역 제주도 병아리 100% 책임져

이광초 사장은 돈을 벌기위해 종계·부화사업을 하는 것 보다 평생 할 수 있는 터전을 가꾸고, 필요한 것(병아리)을 제공해준다는 소박한 장인정신으로 항상 업에 임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일을 믿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육계는 경인축산에서 생산된 병아리가 공급될 정도로 품질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1993년 이후 10년 넘게 이 같은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병아리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계절에 관계 없이 필요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육계는 여름 성수기에는 평소물량(주당 8~10만수)의 두배인 주당 20~30만수 물량을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종계입식부터 신중하게 결정하여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이동제한이 걸리면서 제주도의 주문이 끊겨 지속적으로 발



▲ 현장(좌)과 사무실(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이광초 사장

생되는 병아리를 처리하는데 너무나 큰 아픔도 경험했다. 과거 유일농원에서 함께 동거동락을 해오던 선·후배들과도 현재까지 믿음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 나가는가 하면, 열심히 해온 직원에 대해서는 독립을 시켜주는 등 사업 확장보다는 직원들의 복지에 힘을 쏟아왔다.

병아리가격 가격연동제 업계발전에 도움 시사

이광초 사장은 사무실 전산망을 통해 육계가격, 종계입식 등 모든 자료를 입력해 향후 전망을 분석, 활용해가고 있다. 앞으로 양계협회에서 추진해가는 DB가 구축되고 육계병아리 부화현황이 100% 오픈 될 경우 육계산업의 안정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최근 농림부에서 양계산업안정화를 위해 제시한 병아리 가격 연동제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 질수록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의견을 주었으며, 종계 75주까지 생산하는 데에도 업계발전을 위한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광초 사장은 이번 우수양계인상 수상에 대해 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본인이 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겸손함을 표하면서도 열심히 일에 전념하다보니 실무자중 종계·부화산업계의 선두주자 대열에 있어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음을 밝혔다. 이광초 사장은 현재 경인축산의 닭고기유통 체인점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것이 실현되면 국민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맛있는 닭고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감을 내보였다. (정리 | 김동진 흥보팀장)